

사사기 13. "버림받았던 사사 입다" [11 장 1 절-40 절]

1. 들어가기

본 장은 길르앗이 기생을 통해 낳은 아들 입다가 사사가 되어 암몬 자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입다는 큰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비천한 출생신분으로 인해 아버지의 기업을 얻지 못했고, 공동체로부터 쫓겨나 뚝 땅에 거주하며 여러 잡류들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길르앗 장로들은 저들을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 다시 입다를 찾아가 자신들의 머리로 삼겠다며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고민 끝에 입다는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암몬 왕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때 입다는 하나님께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안이 돌아오게 하시면 자신을 제일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를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입다를 제일 먼저 맞이한 것은 다름아닌 입다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입다는 고통스러워 했지만, 입다의 딸은 자신의 운명을 안타까워하며, 아버지가 한 서원대로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대신 두 달간 친구들과 함께 자신이 처녀의 몸으로 죽게 된 것을 슬퍼하고 돌아오겠다 청하였습니다. 두 달 뒤, 입다의 딸이 돌아왔을 때, 입다의 서원은 그대로 행하여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딸들은 이 때가 되면 희생된 입다의 딸을 위해 나흘 동안 애곡하는 풍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2. 입다는 누구일까? (1-3 절)

1)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 기생에게서 나온 자식으로,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 “기생(잇쇄 조나)”: 단순히 술을 파는 여인이 아닌 지역을 옮겨 다니며 윤락행위를 했던 당시 창녀를 뜻함 - 그의 출신이 매우 미천하였음.
- “큰 용사” : 기도온도 큰 용사라 불렀는데, 여기서 그저 전쟁과 싸움에 능한 용사란 의미.
- 그는 친자들에게 핍박을 받으며 아버지로부터 어떠한 기업도 얻지 못하고 동네에서 쫓겨나 뚝 땅에서 거하게 됨.
- 이때 잡류들이 그에게로 모여들면서, 그들의 우두머리, 리더가 됨.
 - A. 입다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 이들은 도덕적으로 부패한 건달들이라기 보단 경제적으로 안정을 얻지 못해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 다니던 사람들.
 - B. 입다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 이들은 그저 불량자들과 떠돌이들과 방탕한 자들.. 이유는 “잡류”의 원어 뜻이 “비었다” 는 뜻이고, 이 단어가 사람과 관련해서 쓰일 때는 늘 좋지 못한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 + 아비멜렉 사건 때도 사용되었음.. 단 차이는 아비멜렉은 일부러 돈을 들고 찾아갔고, 입다는 저들이 찾아와 섬겼다는 것.

2) 그런데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 길르앗 장로들은 위기를 느끼며 다시 입다를 찾아와 자신들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 입다는 장로들의 요청을 거절.
 - 수 7 절,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 그러나 장로들은 다시 입다에게 도움을 청하며 새로운 제안을 함.
 - 수 입다가 나가 싸워주면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것!

■ **생각하기 -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고 변덕스럽다"**

당시 사회에서 한 종족으로부터 추방당한다는 것은 가장 가혹한 형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방당한 사람은 아무런 소속도, 권리도, 보호도 없을뿐더러, 의식주를 시작으로 생명의 기본권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받지 못하는 것이기에 곧 추방은 죽음과도 마찬가지로 형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다를 가혹하게 대하였던 길르앗의 장로들은 지금 자신들의 삶이 위기에 처하고 어려워지자 입다를 찾아와 구원을 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래서 도움을 청하러 온 순간에도 자신들의 체면을 생각하며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지는 못하고 머리를 굴려 흥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볼 때 우리 인간은 참으로 간사하고 변덕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장면은 마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버렸다가 막상 환란이 닥칠 때면 그때서야 다시 하나님을 찾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저들의 간사한 마음과 기회주의적인 습관을 이용하셔서 입다를 저들의 머리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들어 사용하셨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입다는 장로들의 제안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확인하고, 증거를 세운 뒤, 모든 요청을 받아 들이기로 했습니다.

- 10 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 특별히 이때 입다는 자신이 싸움에 능한 큰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 9 절,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자신의 능력을 믿고 앞세우기 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먼저 생각했던 입다의 믿음은 본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그의 믿음은 그저 자신의 이익과 유익에만 목적을 두었다는 것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vs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3. **길르앗의 머리가 된 입다는 제일 먼저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든 일을 기도함으로 시작했습니다.**

■ 11 절,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 미스바의 모임 - 하나님께 제사 + 공식적인 사사로써의 선포식

■ 모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4. **입다는 전쟁보다는 먼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랬습니다. (12-28 절)**

1) 사자를 보내어 암몬 왕과 협상 - "3 가지 중심 주제"

- A. 암몬 왕이 쳐들어 온 이유가 합당한 것인가?
- B. 이스라엘과 암몬간의 일어나는 분쟁 지역(요단 동편 땅)은 암몬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땅이 아닌 아모리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땅이라 사실.
- C. 이 땅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땅! 으로 이미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300 년동안 성읍을 쌓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

23 절, "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

26 절, "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 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삼백 년이거늘 그 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2) 협상의 결론 :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

- 암몬 왕은 더 이상의 협상을 거절하고 어리석게도 전쟁을 선택하였습니다.
- 27 절,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 입다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넘기고 맡겨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문제는 입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 되었습니다.

3) 이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 생각하기 — "입다의 역사관과 신앙관" = 하나님이 온 세상의 재판장이며, 심판자가 되심.

A. 하나님은 언제나 전쟁보다도 평화를 원하시는 분! (신 20:10-14)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죽이고...,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곧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진군할 때 항상 먼저 사자를 보내어 평화를 선언하게 하시며 전쟁을 피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여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B. 입다의 역사 인식의 자세를 배워야 할 것!

입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구원하셨는지 지난 모든 역사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믿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버림받았던 사람 입다가 이렇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무척 신기하고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입다와 같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가정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C.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란 자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최종적인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잠 16:3,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시 37:5-7,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험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곧 사사 입다 = 이스라엘 역사에 정통한 지식 + 하나님을 향한 믿음 + 협상의 능한 말에 능력!

5. 입다의 서원 (30-35 절)

- 1) 전쟁에 임하는 입다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일 먼저 자신을 맞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 2)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입다가 암몬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그를 제일 먼저 맞은 사람은 다름아닌 자신의 하나뿐인 딸이었습니다.
- 3) 그로 인해 입다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고통스러워하였고, 자신의 서원을 후회하였습니다.

주목 - 입다의 서원으로 인해 이야기의 내용은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얻었는지, 승리 후 입다를 통해 얼마나 평안의 시대가 찾아왔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어떤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는지로 방향이 전환되고 말았다. 전쟁의 승리에 관한 언급은 딱 두 구절 밖에 없음!.

6. 번제물이 된 입다의 딸 (36-40 절)

- 1) 입다의 딸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두 달 동안 처녀로 죽게 된 것을 슬퍼하며 마음의 결단을 내릴 시간을 청하였습니다.

참고 - "서원에 대한 입다와 입다의 딸의 차이"

■ 입다 = 딸을 위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애통했다는 사실!
35 절, "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 입다의 딸 = 아버지를 위하여 슬퍼하고 고민하며 운명을 받아들임!
36 절, "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입다의 딸은 아버지 입다처럼 이기적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위해 행하신 일을 그대로 믿으며,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의 맹세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그녀가 슬퍼한 것은 아버지의 맹세가, 혹은 아버지가 한스러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처녀로 죽는 것과 자녀가 없음을 한스러워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2) 두 달 뒤 입다의 딸이 돌아왔을 때 입다는 자신의 서원대로 행하였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딸들은 나흘 동안 입다의 딸을 위해 애곡하는 풍습이 생겼다고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 참고: 학자들의 엇갈린 견해.

(1) 입다가 실제로 딸을 번제물로 드렸을 것이라 견해

- ✧ 본문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기에..
- ✧ 당시 근동지역의 이교도들은 실제로 인간을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 ✧ 이스라엘 처녀들이 해마다 입다의 딸을 위해 애곡했기 때문..

(2) 31 절의 기록의 잘못 혹은 번역의 오류라는 견해

- a. “무엇이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것은” 이라 해석..
곧 입다는 기르는 동물들을 포함하여 무엇이든지 먼저 나오는 것을 제물로 드리겠다는 의미였지 사람을 바치겠다는 의미는 아니였기에 번제로 바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
- b. “여호와께 돌리고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가 아니라, “여호와께 돌리거나 혹은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로 해석.. 곧 만일 사람이면 하나님께 돌려 평생 헌신하게 하고 동물이면 번제로 드리겠다는 뜻으로 생각..

그러므로 A 혹은 B 의 견해를 따르면, 입다의 딸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여인으로 헌신하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 또한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이 사건 때문에 애곡하게 된 것은 앞으로 이런 경솔한 일이 일어나지 말기를 바라는 차원의 경고라 이해!

3) 결론적으로 사사 입다를 보는 관점은 두 가지 - 긍정적 (과거) vs 부정적 (현대)

개인적인 견해 = 분명히 긍정적인 믿음의 모습이 사사 입다에게 있지만, 사사기에서 그려지고 있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
가장 큰 이유는 분명히 믿음은 있었지만, 그의 삶의 방식과 습관이 믿음에 미치지 못했다 생각!
(예: 잡류와 어울림, 항상 협상을 통해 자기 이익을 얻으려는 자세 - 하나님과도 협상!!! = 서원)

생각하기 1. 오늘 내용을 통해 개인적으로 깨달은 내용이나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